

北 핵 소형화...美본토 타격 능력

미군 북부사령관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 가능성 언급 2020년까지 미사일 20~30기·핵 100발 보유 전망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월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밝혔다.

고트니 사령관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과정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며 “아직 그들이 KN-08을 시험(발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발사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는 정보기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최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뿐 아니라 정보당국 및 군 고위층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제임스 클라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엘 워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지난달 20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는다”는 의견을 냈다. KN-08 미사일이 3단 추진체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38노스’에 발표한 새 연구보고서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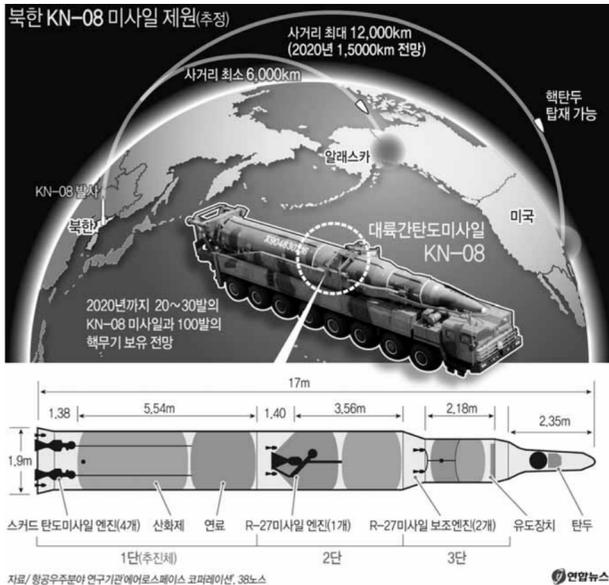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KN-08 추진체 1단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쓰인 엔진 4개로 구성돼 있고, 2단 추진체의 동력은 구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27에 쓰인 엔진 1개가 맡는다. 또 3단 추진체의 엔진으로는 R-27 미사일의 궤도수정용 보조엔진 2대가 쓰였을 수 있다. 보고서가 추정된 KN-08 미사일의 전체 길이는 약 17m. 가장 아랫부분의 지름은 1.9m였다.

북한이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열병식에서 각각 KN-08을 선보이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발사 실험이 이

뤄지지 않은 탓에 최대 사거리나 탑재 능력 등에 대해서는 추정만 이뤄져 왔다. KN-08의 사거리에 대해서도 짧게는 6천km, 길게는 1만2000km까지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기 운반 시스템 현황과 관련,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남한 전역과 일본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1000개, 소수의 경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앞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는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초기 작전수행능력을 갖춘 20~30발의 KN-08 미사일과 1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최대 사거리를 1만5000km까지 늘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개량형 KN-08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미국방장관 일본 방문 미국의 에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8일 일본 도쿄의 방위성 청사에서 의정대를 사열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이번주 한국도 방문한다. /연합뉴스

‘고래싸움’에 눈치보는 한국

〈미·중·일〉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의 한반도에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외교적 각축이 첨예해지고 있다.

미국은 역대 패권질서 유지와 경제적 이익확대를 목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중국은 적극적 대외노선을 천명하며 미국에 대항하는 세 과시에 나선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고리로 역대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집단자위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보통국가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전략 속도= 바라크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키워드에 응축돼 있다. 중동에 쏟던 외교·국방 자산을 아시아로 다시 가져온다는 이 전략의 초점은 ‘패권유지’에 맞춰져 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크게 안보질서와 경제질서 재편의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안보질서 재편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복원과 미·일·호주·인도 각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협력 축의 구축이 골자다.

우선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에 가장 긴요한 ‘도구’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 상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잇달아 초청하는 것은 이 같은 삼각협력 축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이벤트라고 워싱턴DC 내 전

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보질서의 또 다른 축은 미·일 동맹을 확장해 호주·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거대한 육해 안보협력의 띠를 형성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구도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질서 재편은 일본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그 중심고리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아·태 자유무역지역지대(FTAAP) 구축을 내세우며 역대 경제적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권역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이달 말 방미는 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강한 중국’ 내세워 미국에 세 과시=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2년 말 집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외교기조인 ‘도광양회’(韬光養晦) 대신에, 전 세계를 무대로 이미 국방력과 외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한 ‘중국노선’을 걸어들었다.

중국은 최근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한국과 영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을 포함해 50개국 이상을 가입하게 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주요 2개국(G-2) 대결에서 미국에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견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면서 안방인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미국과 신 밀월 통해 ‘보통국가화’ 행보 박차=일본 정부는 전후 70주년을 올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부차적 과제로 미룬 채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미국을 끌어들이고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문제로 갈등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한국·중국의 ‘역사 예봉’을 피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는 등 미·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다. 한 상황에서 미·일의 ‘밀월’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 한국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지 모른다.

미·일 동맹 강화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경우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디아베, 위안부 책임 회피 ‘교묘한 영어 표현’ 논란

〈Human trafficking:인신매매〉

영어와 한국·일본어 해석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하순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표현한 것을 둘러싸고 영어 해석상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어 ‘human trafficking’은 국가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인신매매’는 개인적인 착취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도쿄 도내에서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군위안부 발언에 대해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통의 대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강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가 7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인신매매’는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특

정하고 있어 영어 해석상의 차이가 크다.

국가적 시스템을 이용해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던 행위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영어와 한·일 간의 영어 해석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위안부 강제동원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human trafficking’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9평
20층 중 10층, 양동 하천방향 원룸형, 내부 깨끗
현, 보5백에 월 50만원 임대 중
대출 3000만원 가능
매매가 7200만원(일시불 조정가)

■ 17평
20층 중 10층, 창가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울수리, 원룸형, 즉시 입주
대출 2000만원 안고
매매가 - 52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허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